# 직업계고 NCS 전문교과 II 온라인수업 콘텐츠 배포

### 전북교육청, 도내 직업계고 35개교 대상… 17개 교과 239차시 배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직업계고 NCS기반 교육과정 전문교과 II의 온라인수업 콘텐츠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직업계고 교사들의 자원을 받아 수업 콘텐츠 제작을 완료했다.

직업계고의 계열별 교과 중 실질적인 직무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12개교 17개 교과목에 35명의 교사가 참여해 총 239차시(10~15분 동영상) 분량의 학습자료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학습자료는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온라인 학습자료방에 탑재해 직업계고 교원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1학년도에도 직업계고학점제 적용을 위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22개 교과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직업계고 온라인수업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천수 미래인재과장은 "온라인수업 콘텐츠는 꾸준히 연구하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열정으로 제작됐다"면서 "교실수업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과 비대면 수업의 상황 속에서도 적극 활용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중앙도서관 13일 온택트 도서관 학술정보박람회 개최

### 20개 국내외 기관 참여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정안성)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2021 온택트 도서관 학술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3일~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북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DB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모색한다. 전북대 도서관에 따르면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학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매년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웅진OPMS전자책, 엘스비어, 엡스코 등 총 20개의 국내외 업체 및 기관들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더 풍성해진 학술DB를 접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dl.jbnu.ac.kr)에 마련된 온라인 부스에 접속해 동영상, 이용안내 자료 등을 숙지하고, 각 부스에서 제공하는 문제풀이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박람회 참가 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7개 이상 부스 참가자는 취업지원과의 '큰사람 프로젝트' 포인트 10점과 교양교과목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온라인 부스별로 아이패드, 갤럭시탭A, 에어팟, 블루투스 스피커, 삼성 무선충전기, 삼성 외장하드 등 다채로운 경품도 마련돼 있다.

정안성 관장은 "온택트 박람회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도서관의 전자자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료를 활용해 도서관자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생들, 전주역세권 환경개선 진행

### 4주간 도시재생 교육 실시
### 답사 등 통해 화분 제작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전주 역세권 사업 구역지 골목에 대형 화분을 제작·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대 LINC+사업단과 전주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주역세권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그간 업무 협약을 통해 전주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거리 환경 개선은 이러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 학생들이 4주에 걸쳐 도시재생 기본 교육을 받고, 주민 인터뷰 등 현장 조사를 통해 거리환경조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결과물이다.

학생들은 전주역과 여행자 도서관 등의 인프라가 위치한 거점시설에서 '여행'이라는 컨셉을 도출했으며, 골목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인 주차 방지물 락스통 등을 대체할 구조물을 만들었다.

특히 목재 재질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행 관련 글귀 등을 활용해 기존 골목이 가진 이미지를 탈피하면서도 휴식이라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한 학생(기계설계공학과 3년)은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경험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전주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여행자들의 체류 시간 증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호 단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첫 마중길의 상징인 전주 역세권 거리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참여하는 교내 학생들이 지역 사회 문제해결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이번 학기부터 도내 고교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 전주대, 10월 16일까지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지역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은 전주대 복수의 학과가 참여해 강좌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주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내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과, 경영학과, 한식조리학과, 경기지도학과(태권도),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등 16개 학과가 참여하는 예술·체육, 요리, 패션, 법률, 인공지능, 과학, 경영·경제, 신산업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특히 교내에 마련된 조리실습실, 공학실험실습실, 디자인실습실, 해치라운지, 순영관(체육관) 등 다양한 대학 시설물을 학생들에게 개방해 진로 설계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전북지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초 계획했던 12차시 일정을 도교육청과 협의해 매주 토요일 5차시 수업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은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운영된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코로나19로 도내 고등학생들의 진로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교학점제' 정책토론회 개최

### 담쟁이교육포럼, '고교학점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

담쟁이교육포럼, 14일 전북대서 '고교학점제' 정책토론회 개최

담쟁이교육포럼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고교학점제 2025년 본격시행,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발제자로 경상대학교 주영효 교수와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하정호 전 대표가, 토론자로 전주 완산고 박제원 선생이 참여한다.

주영효 교수는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교육정책과 제도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 한국교육학연구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정호 전 대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마을활동가'를 자처하며 마을플랫폼 '뚝딱뚝딱 예술창고'를 만들고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대표로 활동한 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교육협력관을 역임했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박제원 선생은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최근 'OECD교육전문가, 황호진이 찾아갑니다'라는 현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매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 전 부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며,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찬반여론이 만만찮지만, 하루라도 빨리 교육계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별도 참가신청 없이 '고교학점제' 정책시행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아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군산기계공고 등과 협약 체결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9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교수법 연구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군산기계공고를 졸업한 성인학습자들의 전주대 입학에 대한 수월성 제고 ▲수업내용과 수업방식에 대한 연구협력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상호협력 ▲진로설정을 위한 특강 교류 ▲비학위 과정에서 개발한 교재와 콘텐츠의 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동숭 학장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군산기계공고와 전북기계공고와의 협력을 통해 전북지역의 우수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전북 소재 기업에 취업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2019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해 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출신의 재직자와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능 성적이 필요없는 특별 입학 전형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향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 되시길 빕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신입회원 가입 문의
- 건실한 사상을 가진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 책임과 사명감을 지닌 청년
- 사무국 063-653-3136
- 회원확충분과위원장 010-2933-6972

회장 양재환

순창JC 지역사회 활동
- 청소년 농구대회
-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 사회복지시설 기증사업
- 젠틀맨 홍보배너 사업